

2. OECD, 각 국의 지배구조 현황을 담은 팩트북 발간 (2014.2)

- 지난 2월,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각 국 지배구조 현황을 담은 팩트북을 발간함²³⁾
 -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은 지배구조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으며 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 이사회, 주주권리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음
 - 소유구조에서는 상장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소유가 집중된 구조를 보이는 국가는 증가했으며 2014년 2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지난 2003년보다 5%p 증가한 수치임
 - 반면, 소유가 분산된 구조를 보이는 국가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3년보다 11%p 감소한 수치임
 -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할 기관,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 도입 여부, 기업지배구조의 규제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팩트북에 따르면, 주로 증권거래소 또는 정부당국이 모범규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18개국이 원칙준수·예외설명 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하여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있음. 상장규정에 이를 도입한 국가는 11개국임
 - 이사회 영역에서는 이사회 구조, 이사회 독립성,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을 다룸
 - 한국, 미국, 영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상장기업은 일원적 이사회(one-tier board)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체코, 아르헨티나 7개국의 상장기업은 이원적 이사회(two-tier board) 구조를 취하고 있음²⁴⁾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사외이사 선임을 권고하거나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법으로, 인도와 이스라엘은 상장규정을 통해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분리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주권리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 이사 선임 방법, 이해관계자 거래 내용 공시 등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주주총회 개최일 15일~21일전에 소집통지를 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 그 기간이 2주 전임
 - 이사 선임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벨기에, 캐나다, 칠레, 독일 등이 있음
 - 각 국에서는 관련 내역 공시, 이사회 승인, 주주제안을 통해 이해관계자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23) 팩트북의 분석 대상국은 OECD 회원국 34개국과 금융안전위원회(FSB)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홍콩 포함),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임

24) 덴마크, 프랑스 등의 상장기업은 일원적/이원적 이사회 구조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의 상장기업은 하이브리드형 이사회 구조를 취하고 있음